

고대 올림피아 제전과 『시민 대축전에 부쳐』*

김 헌**

[초 록]

이 글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의 축제와 삶’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연구에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 서양고대사회에서 축제는 문화적 소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극과 희극, 서정시와 같은 문학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축제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인 비극과 희극은 디오닉시아 제전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에 대한 맥락적인 고려를 무시하고 텍스트 비평에서만 접근한다면, 많은 중요한 요점들을 놓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소크라테스의 부각연설인 『시민대축전에 부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정치적 연설은 기원전 380년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체육행사인 범그리스적 제전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로서, 한국서양고전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일부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주제어: 축제, 올림피아, 고대 그리스, 수사학, 부각연설, 이소크라테스, 범그리스주의
Festival, Olympics, Ancient Greece, Rhetoric, Epideictic Discourse, Isocrates, Panhellenism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연설문이 실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외국인, 말하자면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고, 그리스인들끼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념은 범그리스주의라 불리는데, 그리스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기획이었으며, 동시에 당시에 범그리스적 연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기 있는 정치적 수사학적 토포스의 하나였다. 비록 그는 범그리스적 연합의 지도국으로서 아테네를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는 지도적 도시국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올림피아 제전은 그의 범그리스적 연설을 내놓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리였다.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축제와 삶’이라는 큰 연구 주제 안에 포함되는데, 이 연구는 축제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데도 국내 학계에서는 비교적 덜 주목받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¹⁾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축제가 문화적 소비의 가장 중요한 틀이며 매우 독특한 형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극과 희극, 서정시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축제 연구가 필수적임이 분명하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인 비극과 희극은 아테네의 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공연된 것인데,

1) 서양고전학 연구자들 가운데 축제와 그 정치적,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보라. 최혜영 (2010) 「대 디오니시아에서 비극이 상연된 배경과 의미」, 『서양고전학 연구』 제39권, pp. 5-33. 장영란 (2013) 「그리스 종교 축제의 원형적 특성과 탁월성 훈련」, 『철학논총』 73권, pp. 281-301. 장영란 (2013) 「그리스 종교 축제의 영혼의 치유와 소통」, 『동서철학연구』 69권, pp. 233-255. 문혜경 (2014) 「도시 디오니시아 축제와 아테네 민주주의」, 『서양고전학연구』, pp. 5-36. 문혜경 (2015) 「고전기 아테네 여성의 연극관람과 사회적 친교활동에 관한 담론」, 『서양고전학연구』 제54권 제2호, pp. 65-91.

골드힐(S. Goldhil)이 지적했듯이²⁾, 비극을 이해하는 데에 단순히 연극 비평의 관점이나 문학 창작의 기법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놓치는 것이 많게 된다. 또한 핀다로스의 송가, 그리고 아르킬로코스를 비롯해서 여러 그리스의 서정시인들의 일부 작품은 전 그리스 시민들이 참여하는 4대 제전인 올림피아, 피티아, 네메이아, 이스트미아 제전과 각 도시국가 고유의 축제의 틀에서 활발하게 창작되고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다. 아테네에서 고도로 발전한 수사학 가운데 ‘부각연설’(epideiktikos logos)³⁾이 장례식이나 개선식 이외에도 다양한 축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양 고대 수사학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고르기아스와 루시아스, 이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범그리스주의(panhellenism)’의 연설을 시도한 것도 올림피아 제전과 판아테나이아 제전에서였는데, 이는 연설을 통한 시민의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다.⁴⁾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인 『시민 대축전에 부쳐(Panegyricus)』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이 연설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올림피

2) Goldhil, S. (1990) “The Great Dionysia and Civic Ideology”,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107, pp. 58-76.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고대 아테네의 연설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의회에서 국가의 정책과 입법과 관련된 주장을 펼치는 심의연설(sembouleutikos logos), 법정에서 잘못을 가리기 위해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재판연설(dikanikos logos), 그리고 축제나 예식에서 연설가가 말씀씨를 뽐내거나 대상의 미덕이나 악덕을 부각시켜 찬탄과 야유를 일으키는 부각연설이다(『수사학』 1358a36-b8). 부각연설은 연설이 행해지는 장소나 계기에 초점을 맞춰 예식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설의 고유한 특징에 맞춰 전시연설 또는 과시연설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최근에 한석환(2015)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pp. 95-98)과 천병희(201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숲, p. 41)는 각각 ‘평의연설, 법정연설, 과시연설’, ‘심의용 연설, 법정연설, 과시용 연설’이라고 번역했다.

4)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현(2015) 「이소크라테스와 시민 교육」, 『한국서양고전학회』 제54권 제1호 pp. 35-64를 보라.

아 제전의 기원과 정치적 의미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에, 올림피아 제전의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어떤 기회에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이 발표되었는지를 추정해 본다. 제4장에서는 이소크라테스의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특히 이 연설이 그리스 전체의 화해와 단결을 촉구하며 가장 강력한 외세인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에 맞서자고 주장하는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하는 한편⁵⁾, 그 주도권이 아테네에 있어야 한다는 아테네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것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기에 올림피아 제전이 가장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2. 부각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처』의 발표

이 논문이 다루는 이소크라테스의 부각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처』의 원제는 그리스어로 파네귀리코스(panēgurikos)인데, ‘모두가 다 함께(pan-) 모인 자리에서 발표한(-ēgurikos) 연설(logos)’이라는 뜻이며,⁶⁾ 이소크라테스가 직접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이 제목은 파네귀리스(panēguris)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명사는 ‘모든’을 뜻하는 판

5) 이 논문은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가 축제라는 틀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범그리스주의’ 자체를 분석하고 검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에 관해서는 김현(2015)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인문논총』 제72권 제3호, 서울대인문학연구원, pp. 45-77을 보라.

6) 서양의 고전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에 제목을 붙이면서 라틴어 표기를 즐겨 사용한다. 이 연설문에도 통상 panegyricus라는 라틴어 제목이 붙는데, 그리스어로는 panēgurikos이며 그 뒤에는 logos가 생략된 것이다.

7) Schiappa, E., Timmerman, D. M., Laurén (newly edited) (2016) *Jebb's Isocrates*, Sophron Editor, p. 132.

(pan)과 ‘모임, 군중’을 뜻하는 아귀리스(aguris)가 합해진 말이다. 여기서 아귀리스(aguris)는 대중이 군집하는 장소인 아고라(agora)와도 통하는 말로서 ‘모이다’라는 뜻의 동사 아게이레인(ageirein)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파네귀리스(panēguris)는 ‘모든 사람들’(또는 ‘모든’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와 그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장소와 계기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가적, 국제적 축제를 가리킨다. 문맥에 따라서는 시민 전체가 모이는 민회나 제의적 집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학적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부각연설(epideiktikos logos)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거나 의무 없이 그저 연설 자체를 즐기는 관람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모임을 가리킨다.⁸⁾ 이를 일반적인 의미로 ‘시민대축전’이라고 옮길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번역은 여성들이나 노예들의 참여가 그 모임에 허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맞는 번역일 수 있지만,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 외연보다는 좁은 제한적인 번역일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피아 제전처럼 원칙적으로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시민대축전’이라는 번역이 무리 없이 통용될 수 있다.⁹⁾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의 제목 ‘파네귀리코스’는 다분히 모든 시민들이 모인 대규모의 축제를 염두에 둔 제목이다. 그렇다면 어떤 축제인가? 프렐러(L. Preller)는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모였던 범아테네인축제

8) Pernot, L. (2015) *Epideictic Rhetoric*,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 71.

9) 곧이어 논의되겠지만,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목은 적절하다. 올림피아 제전은 남성들(자유시민)의 제전으로서 여성들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딜론(M. Dillon)에 따르면, 올림피아 제전을 주관한 엘리스의 법은 올림피아 제전에 여성이 참가하는 것은 물론, 관람하는 것도 금지하였으며, 심지어 제전 기간 동안 올림피아 가까이에서 흐르는 알페이오스 강을 건너다 적발되는 여성은 튀파이온 산에서 던져지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Dillon, M. (2002) *Girls and Women in Classical Greek Religion*, New York: Routledge, p. 131.

(Panathēnaia)에서 이 연설문이 발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¹⁰⁾, 허드슨-윌리엄스(H. L. Hudson-Williams)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올림피아 제전이나 범그리스적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아테네에서 발표된 것이며, 아테네 독자들을 위해 출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연설문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전체가 하나로 뭉쳐 페르시아를 향한 군사적 원정을 하자면서, 범그리스주의를 주도할 도시로 먼저 아테네를 꼽고 스파르타를 비판하면서도, 결국 당대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스파르타와 함께 아테네가 공동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¹²⁾ 이런 내용에 주목하여 많은

10) Preller, L. (1837), *Demeter und Persephone, ein Cyclus mythologischer Untersuchungen*, Hamburg: Perthes, p. 71. Schiappa, E., Timmerman, D. M., Laurén (newly edited) (2016) 위의 책, p. 132. 판아테나이아 제전은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축제로 에릭토티오니오스에 의해, 또는 테세우스에 의해 최초로 거행되었다고 한다. 아테나 여신의 생일로 여겨진 헤카톰바이온 달(7/8월) 28일부터 3일 동안 열렸는데, 장엄한 행렬과 함께 아테네 여신의 조각상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매년 열리는 축제였지만, 기원전 566/5년부터는 당시 아르콘이었던 히포클레이데스에 의해 특별히 올림피아 제전처럼 4년에 한번은 대규모로 거행하기 시작했으며, 대규모 운동경기가 추가되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낭송대회를 추가하였으며(이것은 올림피아나 피티아 제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다양한 음악경연대회도 간헐적으로 함께 열었는데, 나중에 페리클레스는 음악경연대회를 고정 프로그램으로 추가하였고, 음악경연대회를 위한 음악회장인 오데이온을 지었다. Parke, H. W. (1977) *Festivals of the Athenian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3-50. Neils, J. (2012)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Public Festival — The Panathenaic Festival of Athens”, in J. R. Brandt, J. W. Iddeng (ed) (2012) *Greek and Roman Festivals, Contents, Meaning,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9-215.

11) Hudson-Williams, H. LL. (1949), “Isocrates and Recitations”, *The Classical Quarterly*, Vol. 43, No. 1/2, pp. 65-69. 이소크라테스는 『시민대축전에 부쳐』(Panegyricus)를 발표하고 약 40년 뒤인 기원전 340년경에 범그리스주의를 담은 부각연설인 『판아테나이아제전에 부쳐』(Panathenacus)를 발표한다.

12) 이에 관한 수사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김현 (2015) 『『시민대축전에 부쳐』에 나타난

학자들은 이 연설문이 판아테나리아 제전이 아니라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발표의 시기에 대한 논쟁의 결론도 이 연설문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다음 구절은 연설문 발표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그들은 평화조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만티네아 사람들
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테베의 카드메이아를 점령했으며, 지금
은 올론티스와 플리우스 사람들을 봉쇄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¹³⁾

이 인용문에서 여러 도시들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은 스파르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올론티스와 플리우스 사람들을 봉쇄하고 괴롭히던” 시기를 이소크라테스는 “지금”(nun)이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을 근거로 우리는 이 연설문의 발표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스파르타인들이 만티네아 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테베의 카드미아를 점령한 것은 기원전 383년이었다. 스파르타가 올론티스를 포위한 것은 그 이듬해인 기원전 382년부터였고, 플리우스를 봉쇄한 것은 기원전 380년 초였다. 그런데 이 두 도시 모두 스파르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기원전 379년에 함락되었다. 따라서 이 연설문이 발표된 “지금”은 플리우스에 대한 봉쇄가 시작된 기원전 380년보다 더 이전일 수 없으며, 두 도시가 함락된 기원전 379년 이후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열린 최대 규모의 범그리스제전은 바로 기원전 380년에 열린 올림피아 제전이다. 따라서 이때 이 연설문이 발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⁴⁾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적 전략, 『수사학』 제24집, pp. 49-89를 보라.

13) 『시민대축전에 부쳐』 126. 번역은 김현 외(2015)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민음사에 수록된 본문을 살짝 손질해서 인용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후로 이 연설문의 본문이 인용될 경우에 본문구분 번호만 사용한다.

14) 이런 계산에 따르면, 프렐러의 주장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 그의 주장대로 만약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제국의 위용을 갖추면서 패권을 누리던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이후 그리스 세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잃었던 시기다.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도 그리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다른 유력한 도시국가들의 지속적인 도전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같은 그리스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이용해 끊임없이 농단을 부리던 페르시아 제국은 스파르타를 압박했고, 코린토스 전쟁(기원전 395-387년) 이후 굴욕적인 ‘왕의 평화협정’(기원전 387년)¹⁵⁾을 맺었다. 그 결과 스파르타는 아나톨리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페르시아 제국에 넘겨야 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가 그리스 본토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 굴욕적인 협상을 통해 스파르타는 그리스 전역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공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했고, 그 때문에 범그리스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의 지식인 이소크라테스가 가장 대표적인 범그리스적 제전인 올림피아에서 이 연설문을 발표한 것이다.¹⁶⁾ 그의 주

이 연설문이 판아테나이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다면, 이 제전이 올림피아 제전이 있는 해로부터 2년 후에 거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원전 380년에 개최된 제100회 올림피아 제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 연설문의 발표 년도는 그 이전인 기원전 378년이거나 그 이후인 기원전 382년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원전 378년에는 플리우스의 봉쇄가 시작되기 전이며, 기원전 382년은 두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지금... 봉쇄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가 발표한 연설의 제목에서 말하는 ‘시민대축전’(panēguris)은 기원전 380년의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5) 이 협정은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아테네와 다른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구성하여 스파르타를 공격한 코린토스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사이에 맺어진 평화협정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사까지 가서 이 협정을 성사시킨 스파르타의 외교관 안탈키다스의 이름을 따서 ‘안탈키다스 평화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르시아 왕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왕의 평화협정’이라고도 부른다.

16) 이소크라테스가 직접 나서서 연설을 하지는 않았으며 그보다 수사학적인 실연(實

장의 핵심은 다음 구절에서 간단명료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방인을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들은 ‘한마음 한 뜻’(homonoia)이 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3)

여기에서 이방인은 그리스를 두 차례 침략했고, 그 이후에도 호시탐탐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으며, “지금” 그리스의 갈등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페르시아 제국, 특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를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범그리스적 제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적 표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한 것은 이소크라테스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고르기아스도 기원전 408년에 열린 올림피아 제전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 필로스트라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르기아스는 『올림피아 연설(Olympikos logos)』에서 그리스인들이 나누어 서로 반목하는 현실을 보고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힘을 그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 행사하지 말고 적대적인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야 하며, 그 어떤 도시국가도 자신들의 군대와 무기를 사용해서 그리스 내부의 다른 도시국가를 약탈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땅을 그 보상으로 얻고자 행동해야 한다고 설득했다.¹⁷⁾ 또한 아테네 최고의 법정연설(문 작성)가로 알려진 루시아스도 기원전 388년의 제98회 올림피아 제전에서 『올림피아 연설』을 했으며 그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¹⁸⁾ 이런 점에서 보면, 이

演, hupokritēs, actio)이 더 뛰어난 연설가가 발표하였다. Norlin, G. (1928), *Isocrates*,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pp. xxx, 119.

17) 필로스트라토스, 『소피스트들의 생애』 493.

18) 루시아스는 이 연설문에서 그리스인들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이를 해치는 참주들의 폭정을 공격하는데, 특히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누시오스를 권좌에서 내쫓고 시칠리아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Lamb, W. R. M. (1930) *Lysias*,

세 사람의 연설에 나타난 범그리스주의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단합을 촉구하는 일련의 ‘한마음 한뜻의 수사학’(the rhetoric of homonoia)이라고 범주화시킬 수 있을 만큼 당대에 인기 있는 일종의 토포스였다고 할 수 있다.¹⁹⁾

3. 범그리스적 제전 올림피아

고르기아스와 뤼시아스, 이소크라테스는 왜 올림피아 제전에서 이런 연설을 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올림피아 제전이 전체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억제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던 평화의 제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설 내용은 적절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전통은 1896년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도 개막식이나 폐막식 행사를 통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문제는 당대 고대 올림피아 제전은 본질적으로 운동경기제전이며, 그곳에 모인 관중의 관심도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선수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될 수는 있다. (그것은 또한 현대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질문이다.) 운동경기를 위해 모인 그들을 향해 전체 그리스(또는 세계) 평화를 위한 정치적 비전이 담긴 연설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물음에 대해서도 대답은 비교적 쉽게 제시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미 사이의

Harvard University Press, pp. 680-689. 뤼시아스는 아테네에 정착하여 연설문대필가로 활동했지만, 그는 본래 시라쿠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국의 독재적 참주의 횡포가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의 단합을 망친다는 생각을 올림피아 제전에서 피력한 것이다.

19) Spivey, N. (2012) *The Ancient Olympic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9-198.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도 평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는 올림피아 제전에 딱 맞는 것이었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실제로 올림피아 제전의 기간을 앞두고 그리스인들은 실질적인 휴전과 평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피아 제전은 기원전 776년 8월 22일에 처음 열렸고 1168년 동안 지속되다가 서기 393년에 대회를 마지막으로 고대 사회에서 종적을 감췄다.²⁰⁾ 이 제전이 열렸던 장소 자체가 올림피아였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의 엘리스 지방에 위치한 범그리스적 성역(panhellenic sanctuary)이었다. 그곳이 성역이 된 것은 미케네 문명의 시기(기원전 1600-1100년)였다. 트로이아 전쟁의 노장이었던 펠로스의 네스토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주변 미케네 시대의 왕국들이 제사를 지내던 공공의 성역이었다. 이곳에서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게 된 것은 평화가 절실하던 시기였다. 즉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고 도리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침입해 들어온 이른바 그리스 고대의 암흑기였다. 그때 그 지역에서는 이주민과 토착민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이 빈번했다. 올림피아 제전은 바로 이런 혼란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었다.²¹⁾

20) 이후 내용의 많은 부분은 양병우의 연구 내용((1988) 『고대 올림픽』, 지식산업사)을 본 논문의 주제에 맞춰 요약한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적어도 서양고전학 분야에서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직 이 연구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포괄적인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다. 올림피아 제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체육계 쪽에서 나오고 있다.

21) 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강유원(1998), 「고대 그리스 경기의 기원」, 『한국체육고학회지』 제7권 제2호, pp. 39-46. 김주화(1999) 「고대 올림픽 경기의 기원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8권 제2호, pp. 9-23, Kim, J. H. (2002) “A Histo-Philosophical Study on the Harmony of the Two Contradictory Conceptions of the Ancient Olympic Games”, 『체육사학회지』 제9호, pp. 25-39, 구효송(2012) 「분쟁 해결의 관점에서 본 고대 올림픽의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제31호, pp. 7-35, Ramón Spaaij (2012) “Olympic rings of peace? The Olympic movement, peacemaking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Sport in Society*, Vol. 15, No. 6, pp. 761-774 등을 보라.

플레곤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을 벌이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스파르타인 튀쿠르고스와 엘리스인 이피토스, 피사인 클레오스테네스가 모여 펠롭스와 헤라클레스가 개최하였던 운동시합을 다시 올림피아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휴전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이피토스의 원반’에 새겨 넣었다. 그러나 초기 대회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해안 지역의 왕국들만이 참가하였고, 나중에 가서 스파르타와 타 지역 왕국들이 참여하여 서서히 범그리스적 축제가 되었다. 따라서 세 명의 명단 가운데, 튀쿠르고스는 플레곤이 말한 것과는 달리 스파르타가 아니라 엘리스와 피사와 인접해 있던 트리필리아의 대표였던 것으로 보인다.²²⁾ 이와 같은 취지로 4년마다 개최되었던 올림피아 제전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전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인들 사이의 전쟁을 멈추는 평화의 제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리스 최고의 제전답게 올림피아 제전의 주신은 제우스였다. 파우사니아스는 올림피아 제전의 신화적 기원을 제우스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에 연결시켰다.²³⁾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기리라는 신탁 때문에 크로노스는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여섯 번째로 제우스가 태어나자 그의 어머니 레아는 제우스를 빼돌려 크레테 섬에서 몰래 키웠다. 빼돌려진 제우스를 돌본 것은 쿠레테스라고 불리는 닥틸로스들이었다.²⁴⁾ 이들은 무료함을

22) 양병우는 튀쿠르고스가 스파르타 출신이라고 한 플레곤의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며, 스파르타는 나중에 가서야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했다고 본다. 실제로 스파르타 출신의 우승자의 이름이 나타난 것은 제15회 대회(기원전 720년)가 처음이라고 한다. 양병우(1988) 앞의 책, pp. 27-28. 어쨌든 플레곤의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23) 파우사니아스, 『아티카』 5.7.6-9.

24) 그리스 말로 손가락을 뜻하는 말인 “닥틸로스”는 손재주가 아주 좋았던 신들의 이름이기도 했다. 이 닥틸로스들은 대장장이 노릇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마술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달랠 겸, 어린 제우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놀이삼아 달리기 시합을 했고, 나중에는 올림피아로 자리를 옮겨서도 경기를 계속했다. 이와 같이 제우스를 즐겁게 해주고, 그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제우스의 가호를 기원하는 종교적 제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올림피아 제전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루시아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그리스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처음으로 이 제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많은 아름다운 업적의 가치도 높지만, 신사 여러분, 특히 우리가 헤라클레스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헬라스에 호의를 품고 이 경기를 최초로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도시들은 그전까지 오랫동안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수들의 독재를 끝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제압한 후, 헬라스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몸 겨루기와 부를 얻는 공명심과 견해를 뽐내는 제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곳에 모여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스인들이 이곳에서 모인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친애를 갖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²⁵⁾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올림피아 제전은 기원전 77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1 스타디온(stadion, 약 192.27m)의 달리기 경기만 있었다. 그러나 횡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경기 종목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스물 세 종목까지 되었다. 제14회(기원전 724년)부터는 스타디온을 왕복으로 달리는 디아올로스(diaulos) 경기가 추가되었고, 제15회(기원전 720년)에는 장거리 달리기인 돌리코스(dolikhos)가 도입되었다. 제65회(기원전 520년)에는 완전무장을 하고 스타디온을 한 번 왕복하는 호플리토드로모스(hoplitodromos)라는 달리기 시합도 열렸다.²⁶⁾

25) 루시아스, 『올림피아 제전에 부처』 1-2.

땅을 밟고 빨리 달리는 인간의 행위는 곡물의 성장을 촉구하는 가장 원초적인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림피아 제전에서 달리기와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꼽혔던 것은 이 제전이 원천적으로는 농경사회의 가치와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그렇지만, 올림피아 제전의 역사는 땅의 여신들을 섬기는 제의보다 하늘의 신 제우스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올림피아 성역 안에 헤라의 신전이 먼저 있었고,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제우스의 대신전이 건설된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스타디온 달리기와 우승자가 제우스의 제단으로 달려가 점화하는 장면이 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올림피아 제전이 제우스를 기리는 종교적 축제로 바뀌었던 시기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²⁸⁾

육상 이외의 종목이 포함된 것은 제18회(기원전 708년)부터인데, 레슬링과 5종 경기(펜타틀론(pentathlon): 달리기, 멀리뛰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레슬링)가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던지기 시험에는 선수들의 투척 움직임에 따라 음악이 곁들여졌다. 제23회(기원전 688년)부터는 권투가 포함됐으며, 제33회(기원전 648년)부터는 판크라티온(pankration)이라는 종합격투기가 추가되었다. 제25회(기원전 680년)부터는 사두마차 경기도 열렸고, 제93회(기원전 408년)에는 이두마차 경기도 있었다.²⁹⁾ 이 경

26) 이 모든 육상경기는 이후에 생겨난 다른 제전들, 즉 퀴티아, 이스트미아, 네메이아 제전에서 벌어지는 육상경기의 표준이 되었다.

27) 올림피아에는 제우스의 신전 이외에도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신전과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본래는 대지의 여신이었다)와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의 신전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남성들만이 참여하고 관람하던 올림피아 제전에 (경기에 참가한 남성들은 모두 나체였다) 예외적으로 데메테르의 카뮈네 여사제는 심판석 맞은편의 제단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양병우(1988) 앞의 책, pp. 40-41.

28) 전매희(1984)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해명한 올림픽 기본정신」, 『한국체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 2045-2052, Papantoniou G. (2008) “Religiosity as a main element in the ancient Olympic Games”, *Sport in Society* Vol. 11, No. 1, pp. 32-43.

29) 기원전 약 13-11세기 사이에 트로이아 전쟁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전쟁을 배경

기는 말이나 마차를 소유한 부자들만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많이 집중된 호화스럽고 화려한 경기였다. 그밖에도 경마와 노새, 망아지 마차경기와 소년들의 경기가 추가되었다. 모든 경기에는 원칙적으로 남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지만, 마차 경기에 한해서만은, 마차를 소유한 여인들이 전차 몰이꾼을 고용해서 경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한 후에도 올림픽아 제전은 계속되었는데, 로마인들도 참가함으로써 범그리스주의의 배타적 성격은 사라졌다. 티베리우스(기원 4년, 제194회), 게르마니쿠스(서기 17년, 제199회), 네로(서기 67년, 제211회) 등 로마의 유력인사와 황제까지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하곤 했다.³⁰⁾

올림픽아 제전이 엘리스, 피사, 트리폴리아 등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서쪽 지역의 행사에서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참여하는 범그리스적 제전으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주목할 만하다. 현대의 올림픽 경기가 그리스 올림픽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취한 성화를 전 세계로 보내면서 시작되는 것처럼, 고대 올림픽아 제전도 엘리스에서 ‘성스러운 휴전’(ekekheiria)이 선포되고,³¹⁾ 대화 참가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사신들

으로 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에 나오는 ‘파트로클로스의 추모 운동경기’와 ‘파이니키아인들의 운동경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미 달리기뿐만 아니라 격투기와 던지기, 마차경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772년에 올림픽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종목이 열렸던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여러 종목이 포함된 운동시합이 올림픽아 이전에도 있었지만, 올림픽아에서는 달리기 시합만 있었고, 나중에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모방하며 올림픽아에서도 다양한 경기가 열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즉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타난 운동경기 장면은 올림픽아 제전에서 다양한 경기가 열린 시기 이후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 새롭게 각색되고 보완되었다는 설명이다.

30) Lee, H. M. (1998) “The Ancient Olympic Games: Origin, Evolution, Revolution”, *The Classical Bulletin*, Vol. 74, No. 2, pp. 129-141, 류준상(2003) 「고대 올림픽 경기에 관한 연구」, 『한국레저스포츠학회지』 제7호, pp. 29-38.

31) ‘에케케이리아’에 관해서는 박홍식(2013) 「서양 고중세시대의 평화 이념과 실제」, 『동국사학』 제55권, pp. 493-528 중 pp. 495-498을 보라.

이 그리스 전역으로 파송되면서 시작되었다. 엘리스의 사신을 맞이한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제전 초청에 응하면서 성스러운 휴전에 동참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전 그리스 도시국가가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다. 특히 대회를 주관했던 엘리스 지역은 성스러운 휴전의 중심지로서 성역으로 선포되었고, 무장한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종목이 많아지고 참가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대회 기간과 대회 참가자들의 이동 시간이 길어졌고, 엘리스에 도착한 선수들의 연습기간까지 보태지자, 성스러운 휴전의 기간이 더욱 더 길어졌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전역의 평화는 장기화되었다. 이 성스러운 휴전과 평화의 기간은 최대 석 달 남짓 지속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잘 지켜졌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었고 제전 참가가 금지되었다.

선발된 심판관(hellanodikēs)들이 주축이 되어 참가 선수들의 국적, 나이와 자유 시민 여부, 범죄 경력 등을 따지면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참가가 결정된 선수들의 훈련을 관리하였고 실제 경기를 집행하면서 우승자에게 시상하는 일까지 담당했다. 이와 같이 올림피아 제전의 핵심은 단연 운동경기였다. 이 운동경기에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방인(barbaros)의 참가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자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올림피아 제전의 범그리스적 특징을 강화하였다. 특히 자유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노예의 참가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나중에 노예는 이방인과 동일시되었으며, 그들은 그리스인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통념이 널리 퍼지면서 올림피아 제전은 범그리스적 특징과 함께³²⁾ 그리스 우월주의를 강화하는 제전이 되었다. 이 점은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마침

32) 이와 관련하여 헤로도토스가 역점을 두고 기록한 아테네인들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모두 헬라스인들이요 우리는 한 핏줄이고 같은 말을 쓰며 같은 신전을 사용하고 같은 축제를 개최하며 생활 방식 또한 같소이다.”(『역사』 VIII. 144).

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그리스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강조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이방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계와 배타성, 적대감을 부각시키는 행사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고르기아스, 루시아스,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지식인들은 그리스 각지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인들의 단결과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촉구할 수 있었다. 선수로든, 관중으로든 올림피아 제전에는 원칙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의 자유 시민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자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생계에 일정이 빠듯한 일반 서민들의 참가는 녹록치 않았다.³³⁾ 따라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유한 시민이나 귀족, 참주들이 주된 참가자였다. 한 마디로 그리스 각 도시국가의 지도층 인사들이 관중이나 선수의 대다수,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 안전을 놓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고, 그 파급력도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설가들은 올림피아 제전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기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연설로 피력하였을까?

기원에서부터 발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올림피아 제전의 핵심은 운동경기였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종교적 제의와 함께, 음악과 다양한 예술의 공연, 정치연설가들의 연설이 곁들여져 올림피아 제전 전체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타디온 달리기 경기만 있던 초기에는 올림피아 제전이 하루 만에 끝났지만, 종목과 출전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제전의 기간이 늘어났고, 마침내 기원전 4세기에 들어서면 전체 제전의 기간은 옛새나 되었다. 상

33) Crowther, N. (2001) "Visiting the Olympic Games in Ancient Greece: Travel and Conditions for Athletes and Specta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 18, No. 4, pp. 37-52.

기한 연설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피력했던 시기, 즉 기원전 5세기 말, 4세기 초에 거행된 올림피아 제전의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날은 대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나팔수와 포고인의 경연이 있었고, 선발된 인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 대전표를 짜기 위한 제비뽑기가 있었다. 둘째 날은 어른들의 본격적인 경기가 있기 전에 소년들의 경기가 있었다. 셋째 날에는 오전에 경마와 마차 시합, 오후에 5종 경기가 있었으며, 저녁때에는 아킬레우스와 펠롭스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 넷째 날은 제우스를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제의와 축하연회가 벌어졌고, 다섯째 날에는 오전에는 달리기 시합이, 오후에는 격투기와 무장경주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에는 우승자에 대한 시상식이 제우스의 신전에서 있었다. 포고인이 우승자를 호명하면, 심판관이 올리브 관을 씌워 주었다.³⁴⁾ 저녁에는 엘리스 당국이 프뤼타네이온에 우승자들에게 베푸는 축하의 향연이 있었다. 아르킬로코스와 핀다로스의 올림피아 제전 관련 서정시는 대체로 시상식 이후의 행렬이나 축하의 향연에서 올려퍼졌고, 우승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이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이전에 고르기아스와 루시아스는 언제 ‘올림피아 연설’을 했던 것일까? 올림피아 제전에서 연설을 발표한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적 탁월함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고, 그의 조각상까지 세워졌으며, “훌륭함(aretē)의 경쟁을 위해 마음을 단련하는 고르기아스의 방법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비문이 붙었다고 한다.³⁵⁾ 그런데 그 연설이 올림피아 전체 공식 일정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것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연설문을 편집하고 번역한 주요 학자들

34) 기원전 457년에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종목별로 경기가 끝나고 우승자가 정해지면 곧바로 시상을 했다고 한다.

35) 양병우(1988) 앞의 책, p. 141. Spivey, N. (2012) 앞의 책, p. 197.

도 이 연설문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밝혀주지 않는다.³⁶⁾ 어쩌면 제브(R. C. Jebb)와 샌디즈(J. E. Sandys)의 추정처럼, 올림피아 제전에서 연설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기 보다는 미리 준비된 연설의 필사본들이 올림피아 제전의 기간 중에 대중들에게 유포되었고, 이후에 이소크라테스와 친분이 깊은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졌을 가능성도 높다.³⁷⁾ 실제로 이 연설문 그대로 연설을 한다면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긴 연설을 올림피아 제전 전체 프로그램 중 언제 발표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일단 제기해둔 채로 놔두고, 연설의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4. 『시민대축전에 부쳐』의 범(汎)그리스주의

앞서 밝혔듯이, 이 연설문의 그리스어 제목은 ‘파네귀리코스(로고스)’이다. 이 제목은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장르의 이름으로 통했는데, ‘시민 대축전’(panēguris)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예컨대 그의 다른 연설 “판아네타이아 제전에 부쳐”(panathenaikos)나 퀴시아스의 연설처럼 “올림피아 연설”(olumpikos logos)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정 축제 기간 동안 발표되는 연설인데, 그 주된 내용은 부각연설의 핵심인 찬사였다. 시민대축전의 주신에 대한 찬양이나 축전이 열리는 도시, 신전, 신상에 대한 찬사, 또는 축제 자체에

36) 예컨대, Norling, G. (1928) *Isocrates*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Mathieu, G. (1967, 1^{ère} édition 1938) *Isocrate Discours* Tome 2, Paris: Les Belles Lettres, Papillon, T. L. (2004) *Isocrates* II,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37) Schiappa, E., Timmerman, D. M., Laurén (newly edited) (2016) 위의 책, p. 133. Sandys, J. E. (1868) *Isocrates. Ad Demonicum et Panegyricus*, London: Livingstons, p. xli.

대한 찬사로 채워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은 ‘아테네 찬가’에 해당하는 긴 부분이 ‘고전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의 핵심 내용은 심의연설의 것인데, 각처에서 온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시민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정치적 권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⁸⁾ 그는 그리스 모든 도시국가가 참여하는 최대의 모임, 가장 전통적인 제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전쟁을 하면서 힘을 허비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 그리스를 위협하고 농단하는 페르시아를 공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범그리스주의의 이념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축제의 마당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전을 심의하는 민회와 심의회와 같은 의회 성격의 회합에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 연설문은 앞서 언급한 ‘아테네 찬사’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부각연설’의 ‘시민대축전에 부치는 연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종의 파격적 면모는 연설의 첫 부분부터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참석하여 청중 앞에서 연설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 즉 올림피아 제전을 축하하거나 그 핵심인 운동경기와 선수들의 탁월성을 찬양하기는커녕,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불만을 터뜨린다.

“시민대축전을 조직하고 체육대회(tous gumnikous agōnas)를 개최한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 차례 깜짝 놀랐습니다. 신체를 움직여 탁월한 성취를 보인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큰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다하고 자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명예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1)

38) Pernot (2015) 앞의 책, pp. 52-53.

연설가가 불만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보다 현명한 생각을 말로 전달하여 그 생각을 함께 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큰 혜택을 주는데, 올림피아 제전을 집행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몸과 영혼을 비교한다면, 몸은 영혼이 내리는 지시를 수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³⁹⁾ 다시 말해서 몸의 능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보다는 영혼의 능력이 뛰어난 연설가가 타인과 공동체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들인데, 대접이 소홀하다는 말이다. 이런 불만이 육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올림피아 제전을 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림피아 제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소크라테스의 몸-영혼 이분법에서는 영혼의 기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몸이 영혼의 뜻을 이루어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이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함축을 갖기 때문이다. 이소크라테스의 진정한 뜻은 올림피아 제전의 의미가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할 때, 훨씬 더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에 있다.

또 하나, 이 연설문의 중요한 역설이 주목할 만하다. 범그리스 축제인 올림피아 제전에서의 연설이라면, 개최 장소인 올림피아 성지를 찬양하든가, 올림피아 제전의 주신인 제우스를 찬양하든가 아니면 제전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주관 도시인 엘리스를 찬양할 법한데, 그의 찬사는 오직 자신의 조국 아테네를 향한 것이었다. 범그리스적 모임에서 자국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범그리스주의 자체는 범그리스적 축제 자체에는 어울리는 주제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단합과 이방인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주장하면서, 그 주도권을 아테네가 행사해야 한다는 실천의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테네 중심주

39) “우리의 본성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합의되는 사실이며, 이 두 부분 가운데서 영혼이 본성적으로 더 지배적이며 더 많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일은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인 반면, 몸의 일은 영혼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환소송에 관하여(Antidosis)』 180.

의의 특징을 보인 것이다. 허드슨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이 연설문은 고르기아스와 퀴시아스의 ‘올림피아 제전을 위한 연설’과는 달리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에서 온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다는, 설령 그리스 전체로 유포되기를 바라고 계획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아테네 독자(또는 청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실제로 그는 범그리스주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현재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시의적절한데, 이 주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그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라고 주장하면서(15), 결국 아테네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도권 문제를 제기한 후에 곧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유력한 후보로 제시한다(16).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둘 사이에 불화가 없어야 하며, 서로 ‘뭇을 똑같이 나누며 주도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17). 그러나 곧바로 그는 두 도시국가를 비교하면서 스파르타를 비난하고 아테네를 찬양하는 데에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18-189). 바로 이 부분이 아테네 중심주의 또는 우월주의로 읽힐 수 있다. 심지어 몇 부분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경강부회나 아전인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방인과 전쟁을 하면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 주도 세력은 필요하고, 주도권을 쥐 도시국가나 특정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이나 개인의 욕망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유연하고 관대하게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⁴¹⁾ 비록 이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 아테네가 그런 자질을 가진 유일한 도시로 부각되며, 따라서 이소크라테스의 태도가 자국

40) Hudson-Williams, H. LL. (1949), 앞의 논문, pp. 65-69 중, p. 68.

41) 이와 같은 태도를 이소크라테스는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김현(2017) 「이소크라테스의 에피에이케이아 — 예식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쳐』 23-63을 중심으로」, 『수사학』 제29집, pp. 27-54를 보라.

중심주의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범그리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이라고 평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는 ‘듣는 사람들을 가장 이롭게 해주는 말이 가장 아름다다’는 마음가짐으로(4)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서로 치고받는 전쟁과 현존하는 혼란과 극심한 병폐로부터 우리(그리스)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철학하려고’(philosophiein touton ton logon) 한다.(6) 그의 말을 믿는다면, 그가 자신의 조국 아테네를 범그리스적 단합의 지도국이라고 주장하며 그 능력과 자격을 호의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바다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공을 세웠다(21-22). 둘째,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위대하고 명성이 드높은 토착 세력이다(23-25). 셋째, 그리스에 가해졌던 전쟁의 위협을 이겨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민공동체를 발명했다(26-27) 이 가운데 세 번째 선행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다. 1) 데메테르 여신이 제공하는 땅의 열매와 입교의식은 아테네에서 비롯되어 그리스 전역으로 전파되었다(28-33). 2) 그리스 내부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을 멈추고 식민지를 건설하여 영토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였다(34-38). 3) 법과 정치체제, 교역지(페이라이오스)를 마련하여 그리스 시민들의 삶을 바로 잡고 풍요롭게 했다(39-42).

그리고 이어 덧붙이는 내용에서 이소크라테스는 비로소 시민대축전을 창립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모든 시민들이, 그것도 그리스의 모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의 축제가 그리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 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대축전을 창립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주를 바치며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내재되어 있던 적대감을 풀고 한곳에 모여, 공동으로 기도와 제물을 바쳐 우리가 서로 같은 태생의 동족임을 상기한 채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오래된 우정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동료의식을 만들 수 있는 전통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43)

이런 주장은 올림피아 제전과 같은 범그리스적 축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아테네를 비롯해서 다른 도시국가들에서 개최되는 축제에도 타 도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며, 대회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도시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축제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개최측은 자기 도시국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외교적 위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노릴 수 있었다. 또한 도시국가 사이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자국 시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축제였다.

이와 같이 축제의 중요성과 가치, 정치적 의미를 한껏 고양시킨 후,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축제를 개최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며 우승자를 명예롭게 하는 데에 가장 뛰어났다고 주장한다(45-46). 앞서 지적했듯이,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범그리스적 제전인 올림피아 제전에 부치는 연설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첫째, 올림피아 제전보다 아테네의 축제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둘째, 범그리스적 제전에서 아테네의 우월성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연설은 아테네 중심주의, 우월주의의 성격을 내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범그리스주의적 축제에서 범그리스주의를 부각시키는 연설로서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이소크라테스의 연설 의도를 깊이 되새겨 보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 이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주최하는 제전의 차별성

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림피아 제전의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소크라테스가 먼저 제시한 축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평가는 올림피아 제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여느 축제와는 달리 자국의 축제에 도입한 다른 측면의 경쟁, 즉 육체적 경쟁뿐만 아니라 영혼의 경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이소크라테스가 부각시켰는데⁴²⁾ 이것은 올림피아 제전이 자칫 놓치기 쉬운 측면을 상기시킨 것으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축제를 부각시킨 부분을 단순한 자국 우월주의, 아테네 중심주의로만 읽을 수는 없다. 오히려 아테네의 탁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그리스 전체의 탁월성이 되며, 이를 통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반목과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 중심주의, 그리스 우월주의, 즉 범그리스주의가 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도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취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간접적으로 올림피아 제전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제에 관한 평가를 마무리 지은 이소크라테스는 곧이어 아테네가 그리스 전역에 제공한 정신적 문화의 성과를 나열한다. 첫 번째는 철학(philosophia)이다. 앞서 소개한 아테네의 모든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철학이며, 이것을 아테네가 그리스 전역에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42) “우리도시는 가장 아름다운 구경거리를 가장 많이 벌이는데, [중략] 속도와 힘을 겨루는 경기뿐만 아니라 말과 견해와 다른 모든 활동의 우열을 가리는 시합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의 상도 가장 큼니다.”(45).

43) 세계 문명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이소크라테스의 연설이 갖는 문제점은 그리스 내부에서의 아테네 우월주의, 아테네 중심주의라기보다는 그리스 중심주의, 서구 우월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설에는 페르시아를 포함, 아시아에 대한 폄하와 배척의 시각이 있으며, 이는 인종우월주의로 오해되거나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Isaac, B. (2006) *The Invention of Racism in Classical Anti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83-298을 보라.

(47). 물론 이 철학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철학의 개념은 이소크라테스와 큰 차이를 보였던 플라톤의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소크라테스의 철학,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의 핵심은 상식과 의견, 그리고 교육(paideia)이었다.⁴⁴⁾ 그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말인데, 말의 중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고 이에 관한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테네는 모든 그리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지위를 갖게 되며, 헬라스(그리스)를 종족이 아니라 언어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48-50). 이 개념이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범그리스주의에 가장 근간이 된다. 같은 말로 생각을 전하여 소통하고, 그를 통해 뜻을 같이 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간단한 이념이 현실적으로 그리스의 통합과 이방인에 대한 원정과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을 모든 그리스인들이 성스러운 휴전과 평화의 기간을 갖고 올림피아에 모여 몸의 탁월성을 겨루는 제전에서 선포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를 가능하게 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이므로, 아테네는 이제 범그리스적 연합의 지도자로 서야 한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아테네의 주도권을 옹호하고 청중을 설득하려고 한다(51). 그리스 인들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묶을 수 있는 철학과 말의 교육을 발명하고 그리스 전역에 선포한 아테네에 관해 연설가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원정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은 단지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 연합과 동맹에 참여한 약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의 단결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뢰와 희생에 의해 가능하다. 아테네가 바로 그런 도시국가였다.

44) 이에 관한 논의는 김현(2016) 「그리스 고전기에 아테네가 보여준 철학」, 『서양고전학연구』 제55권 제2호, pp. 145-182를 보라.

“우리는 더 강한 자들과 함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설령 이익에 반하더라도 더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53)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바로 이런 도덕성과 함께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리스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그 힘으로 이방인을 향한 군사적 원정을 감행할 때, 아테네가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하고 적절하다는 결론을 낸다. 이 결론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아테네 중심주의며 아테네 우월주의다. 그러나 아테네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내용은 범그리스적 동맹의 지도국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 ‘이익을 위해 강자의 불의에 타협하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자를 돕는 자가 그리스 전체의 동맹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전제가 되면서 하나의 추론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아테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54-65) ‘따라서 아테네가 지도국이 되어야 한다.’

곧이어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범그리스적 주도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또 다른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준다. 첫 번째 원칙이 주도국이 그리스 다른 도시국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칙은 이방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 ‘이방인의 침략에서 그리스의 영토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이 원칙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를 증거로 삼아 보여준다(66-81). 이 과정에서 그는 아테네의 우수성을 말함과 동시에 범그리스적 통합의 지도국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일반적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들 가운데 하나만 들자면, 예컨대 이런 것이다.

“그들(아테네인들)은 헬라스인들의 지휘관이 되어야지 폭군이 되어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주인이 되기보다는 지도자로

블리기를,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명칭을 얻기를 열망했고, 선대함으로써 도시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 힘으로 돌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80) [중략]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갖는 것을 값지다고 여겼으며, 자신들의 도시를 고유한 도성으로 생각하는 한편, 헬라스를 공동의 조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81)

아테네가 주도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보여준 활약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전쟁에 관한 서술에 많은 공을 들인다(82-98).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는 지금 페르시아에 대한 지난날의 승리를 상기시키면서 미래에 수행해야 할 페르시아 원정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소크라테스는 묻는다.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원정이 곧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99) 페르시아 원정에서 보여준 스파르타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교가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테네였다. 비교의 기준은 전쟁에서의 활약만이 아니었으며, 전쟁 이후에 두 도시가 그리스 전체를 위해, 그리고 개별적인 도시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였다.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그 지배 아래에 있던 도시국가들은 모두 아테네 덕택에 이익을 얻었고 불행을 당한 적이 없었으며, 아테네는 동맹관계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그리스 전체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다른 도시국가에 대해 탐욕을 부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아테네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셈이지만, 아테네가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탈(脫)아테네주의를 주장하는 셈이며, 아테네가 범그리스주의의 선봉에 설 자격을 갖춘 유일한 도시국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 연설의 역설적 설득력은 바로 이런 논리에서 발휘된다 (100-109).

문제가 있다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헬라스 사람들의 주장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103)라고 말했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원칙에 따른다면 패전국 아테네가 아니라 승전국 스파르타가 범그리스적 연합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이 전쟁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아테네에 세워진 펠로폰네소스의 괴뢰정부라 할 만한 10인 체제의 만행을 부각하고 아테네를 옹호하면서(110-114) 궁극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스파르타에게로 돌린다.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자인 스파르타가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결코 그리스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상호 갈등과 불행만을 가져오고 있으며, 페르시아에게 다시 그리스인들에 대한 폭정의 기회를 주었고 다시 정복할 수 있다는 야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테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다(115-124). 그는 올림피아 평원에 모인 청중에게 묻는다.

“이런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라케다이몬 사람(스파르타인) 이외에 다른 누구를 생각해야만 합니까?”(125)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가 지배력을 잃은 사이 스파르타가 패권을 행사하는 상황의 불행을 이소크라테스는 날날이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방인과 타협하여 협정을 맺고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페르시아에 넘겼으며, 그리스 본토에서는 페르시아의 개입을 임시방편으로 막은 상태에서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들을 봉쇄하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범그리스적 동맹이나 단합에 역행하는 반

역적 태도라는 것이다(125-128). 물론 그의 비난은 스파르타에 대한 공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스파르타를 비난함으로써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는 의도(129-132)와 함께 범그리스적 동맹의 지도국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일반적 차원에서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테네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통합을 모색하기보다는 스파르타와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페르시아를 이롭게 하며 그리스의 다른 도시국가들이 서로 싸우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133-137). 조국 아테네를 찬양함과 동시에 뼈아픈 자기 반성을 덧붙인 것이다.

그리스 전체가 직면한 이 모든 고통과 불행,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분명하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페르시아를 공격하여 아시아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이전 세기에 두 차례의 침공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동맹에 패배하였던 전력이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스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며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두 도시를 중심으로 범 그리스적 동맹이 형성된다면 이를 압도할 만한 위력을 페르시아가 갖추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페르시아는 수적으로 압도적인 군대를 이끌고 간헐적으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공격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고전하였던 오합지졸이며 비천하고 비굴한 자들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부각시키며 페르시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지우려고 한다(138-155).

그리스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며, 이 위기를 조성한 이방인들은 강력하지 않다. 그리스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아간다면, 예전에 트로이아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하리라는 희망을 이소크라테스는 결론을 제시한다(156-162).

“지금 이 시점이 놓쳐서는 안 될 적기(kairos)입니다. 지금 찾아온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 지나간 뒤에야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aiskhron)입니다.”(160) “그들이 우리의 작은 부분보다도 더 약한 상태니, 만약 그들이 우리 모두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162)

이소크라테스는 역설적이게도 성스러운 휴전 기간을 선포하고 개최한 올림피아 제전, 범그리스적 평화의 축제에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든 시민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군사적 원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가 원정의 적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 시점에 적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단합하여 적을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으로 페르시아가 또 다시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곧 그것은 그리스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비록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침략을 받아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과거를 상기시킨다(163-174). 그렇다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맺은 평화의 협정은 어떤가? 그것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리스 내부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악재라고 진단하면서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한다(175-189).

전쟁을 촉구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올림피아 제전과 엇갈리면서도 묘하게 어울린다. 전쟁의 갈등을 잠시 멈추고 성스러운 휴전의 기간을 즐기기 위해 그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평화의 제전에서 전쟁을 촉구하는 이소크라테스의 외침은 액면 그대로는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내부의 갈등을 잠시 멈추고 운동경기나 하면서 즐길 때가 아니며, 평화의 제전에서 모였듯이 그리스 전체가 하나로 뭉쳐 평화로운 경쟁을 지속하려면, 범그리스적 화합의 힘을 모아 이 평화로운 축제의 분위기를 위협하는 페르시아를 향해 군사적 원정을 감행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올

뤼피아의 범 그리스적 특징을 절정으로 고조시킨다. 헬레네를 납치한 파리스를 응징하기 위하여 그리스 전체가 연합하여 트로이아를 초토화시킨 조상의 후손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우리가 지금 헬라스 전체가 불법적인 폭력을 당하는 데도 아무런 공동의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aiskhron)입니다. 오직 이 전쟁만은 평화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182)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갈 도시국가는 여러 모로 보아 아테네이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188)을 덧붙인다.⁴⁵⁾

5. 맺음말

지금까지 이소크라테스의 『시민대축전에 부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리스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쟁과 고통,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며 그 힘을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연설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테네인들의 축제인 판아테나이아 제전인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연설이 그 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청중에게 적절한 연설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정치적 청사진이 적절한 축제라면 단연 모든 그리스 도시들이 참여하는 범그리스적 축제인 올림피아 제전이 꼽힌다. 그의 주장은 이를

45) 이 주장의 수사학적 전략에 관해서는 김현(2015) pp. 49-89를 보라.

계기로 인구에 회자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소크라테스 역시 전 그리스 도시국가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자신의 범그리스주의의 이념을 설파하는 연설문을 계속 발표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 연설을 시작으로 평생 동안 범 그리스주의를 표방하는 연설문을 발표하였고, 그리스의 유력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⁴⁶⁾ 올림피아 제전은 이소크라테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정치적 기회였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 그리스인들에게 축제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리스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그들은 공동체가 정해놓은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신이나 영웅과 같은 초인간적인 존재를 기리고 그들에게 제사와 기도를 올리면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다. 그밖에도 시끌벅적한 가장행렬과 엄숙한 제사에 이어지는 먹고 마시는 유쾌한 향연, 운동경기, 음악경연대회,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행사를 장식했다. 그 행사들은 시민들을 일상에서 끌어내어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과 시간, 세계 속으로 초대하였다. 축제에 참여하는 순간, 시민들은 일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며, 일도 싸움도 하지 않은 채 생활세계를 잊고 축제의 시간과 공간, 프로그램과 인간관계 자체를 즐겼다. 그리스인들에게 축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 예술, 스포츠 등 문화를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며 형식이었으며, 합법적인 일탈과 유희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축제는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축제가 주는 일탈이나 유희, 여가는 일상을 모멸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축제는 시민들에게 일상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힘을 주는 활력의 계기였으며, 일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함으

46) 이소크라테스, 김현 옮김(2017)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 — 이소크라테스의 아홉 통의 편지』, 서울대출판문화원.

로써 일상을 틀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올림피아 제전은 범 그리스적 축제로서 전쟁의 현실을 신비롭게 벗어나 성스러운 휴전의 기회를 그리스 전역에 제공하였다. 그것은 축제의 기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그것 그대로 그리스인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현실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여기에서 행해졌던 이소크라테스의 연설은 그리스의 단결과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정의 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다. 범그리스적 축제에 잘 어울리는 다소 이상적인 청사진이었지만, 그것은 그것 그대로 새로운 현실을 구상하고 상상하게 한 정치적 현실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의 연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연설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연설이 전제하는 현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그 연설이 발표되고 유통되며 소비되었던 축제의 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정치적 삶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축제의 의미를 다각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론으로서 향후 더 포괄적인 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뤼시아스, 「올림피아 제전에 부쳐」.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천병희(201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숲, p. 41).
- 이소크라테스, 『시민대축전에 부쳐(Panegyricus)』(김현 외(2015)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민음사).
- _____, 『교환소송에 관하여(Antidosis)』.
- _____, 『판아테나이아제전에 부쳐(Panathenacus)』.
- 파우사니아스, 『아티카』.
- 헤로도토스, 『역사』.
-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뒷세이아』.
- 강유원(1998), 「고대 그리스 경기의 기원」, 『한국체육고학회지』 제7권 제2호, pp. 39-46.
- 구효승(2012) 「분쟁 해결의 관점에서 본 고대 올림픽의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제31호, pp. 7-35.
- 김주화(1999) 「고대 올림픽 경기의 기원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8권 제2호, pp. 9-23.
- 김현(2017) 「이소크라테스의 에피에이케이아 — 예식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쳐』 23-63을 중심으로」, 『수사학』 제29집, pp. 27-54.
- _____(2016) 「그리스 고전기에 아테네가 보여준 철학」, 『서양고전학연구』 제55권 제2호, pp. 145-182.
- _____(2015) 「이소크라테스와 시민 교육」, 『한국서양고전학회』 제54권 제1호 pp. 35-64.
- _____(2015)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인문논총』 제72권 제3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pp. 45-77.
- _____(2015) 「『시민대축전에 부쳐』에 나타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적 전략」, 『수사학』 제24집, pp. 49-89.
- 김현 옮김(2017)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 — 이소크라테스의 아홉 통의 편

- 지』, 서울대출판문화원.
- 류준상(2003) 「고대 올림픽 경기에 관한 연구」, 『한국레저스포츠학회지』 제7호, pp. 29-38.
- 문혜경(2015) 「고전기 아테네 여성의 연극관람과 사회적 친교활동에 관한 담론」, 『서양고전학연구』 제54권 제2호, pp. 65-91.
- _____(2014) 「도시 디오니시아 축제와 아테네 민주주의」, 『서양고전학연구』, pp. 5-36.
- 박홍식(2013) 「서양 고중세시대의 평화 이념과 실제」, 『동국사학』 제55권, pp. 493-528 중 pp. 495-498.
- 양병우(1988) 『고대 올림픽』, 지식산업사.
- 장영란(2013) 「그리스 종교 축제의 원형적 특성과 탁월성 훈련」, 『철학논총』 73권, pp. 281-301.
- _____(2013) 「그리스 종교 축제의 영혼의 치유와 소통」, 『동서철학연구』 69권, pp. 233-255.
- 전매희(1984)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해명한 올림픽 기본정신」, 『한국체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 2045-2052.
- 최혜영(2010) 「대 디오니시아에서 비극이 상연된 배경과 의미」, 『서양고전학연구』 제39권, pp. 5-33.
- 한석환(2015)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연구』, 서광사.
- Crowther, N. (2001) “Visiting the Olympic Games in Ancient Greece: Travel and Conditions for Athletes and Specta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 18, No. 4, pp. 37-52.
- Dillon, M. (2002) *Girls and Women in Classical Greek Religion*, New York: Routledge.
- Goldhil, S. (1990) “The Great Dionysia and Civic Ideology”,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107, pp. 58-76.
- Hudson-Williams, H. LL. (1949), “Isocrates and Recitations”, *The Classical Quarterly*, Vol. 43, No. 1/2, pp. 65-69.
- Isaac, B. (2006) *The Invention of Racism in Classical Anti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83-298.
- Kim, J. H. (2002) “A Histo-Philosophical Study on the Harmony of the Two

- Contradictory Conceptions of the Ancient Olympic Games”, 『체육사학 회지』 제9호, pp. 25-39.
- Lamb, W. R. M. (1930) *Lysia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H. M. (1998) “The Ancient Olympic Games: Origin, Evolution, Revolution”, *The Classical Bulletin*, Vol. 74, No. 2, pp. 129-141.
- Mathieu, G. (1967, 1^{ère} édition 1938) *Isocrate Discours* Tome 2, Paris: Les Belles Lettres.
- Neils, J. (2012)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Public Festival — The Panathenaic Festival of Athens”, in J. R. Brandt, J. W. Iddeng (ed) (2012) *Greek and Roman Festivals, Contents, Meaning,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9-215.
- Norlin, G. (1928), *Isocrates*,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 Papantoniou G. (2008) “Religiosity as a main element in the ancient Olympic Games”, *Sport in Society* Vol. 11, No. 1, pp. 32-43.
- Papillon, T. L. (2004) *Isocrates II*,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Parke, H. W. (1977) *Festivals of the Athenian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Pernot, L (2015) *Epidictic Rhetoric*,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Preller, L. (1837), *Demeter und Persephone, ein Cyclus mythologischer Untersuchungen*, Hamburg: Perthes.
- Ramón Spaaij (2012) “Olympic rings of peace? The Olympic movement, peace-making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Sport in Society*, Vol. 15, No. 6, pp. 761-774.
- Sandys, J. E. (1868) *Isocrates. Ad Demonium et Panegyricus*, London: Livingstons.
- Schiappa, E., Timmerman, D.M., Laurén (newly edited) (2016) *Jebb's Isocrates*, Sophron Editor.
- Spivey, N. (2012) *The Ancient Olympics*,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8년 7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8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1일

ABSTRACT

The Ancient Olympics and *Panegyricus*

KIM, Heon*

This article comprises part of a larger research endeavor exploring the theme of “Festival and Life in the Ancient Greek and Roman World.” Given that the festival was the most important frame for cultural consumption in ancient west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estival in order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literature works as tragedy, comedy, and lyrics. For example, as tragedy and comedy (the most representative literature genres) were presented in the festival Dionysia, many important points might escape our notice if literary works were only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extual criticism, ignoring any contextual considerations of the festival.

In this article, Isocrates’ epideictic discourse *Panegyricus* is the object of analysis. This political discourse was delivered in the ancient Olympics in 380 BCE, even though we do not know exactly in which program it was spoken at this panhellenic festival, which was the most famous sporting event of the time. He gave counsel on the war against the barbarians, so to speak, Persians and on the concord among Greeks. This idea can be called panhellenism, which was Isocrates’ consistent political project

* HK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Greeks; it was also a political and rhetorical *topos* popularly used in panhellenic oration at that time. Although he thought of Athens as the leader of the panhellenic league, his intention was to show the conditions that the leader city-state should fulfil. In conclusion, the Olympics were the most effective place for delivering his panhellenic oration.

